

# 아동기 통제 기질이 청소년기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장나리<sup>1</sup>, 곽금주<sup>2\*</sup>, 김연수<sup>3</sup>

<sup>1</sup>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 <sup>2</sup>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sup>3</sup>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 Effect of Grit on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al Effortful Control and Academic Failure Tolerance

Na Ri Jang<sup>1</sup>, Keumjoo Kwak<sup>2\*</sup>, Yeonsoo Kim<sup>3</sup>

<sup>1</sup>Master's degree,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3</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Jeon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의 통제 기질이 청소년기의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경기 지역의 참여자 108명을 대상으로 만 8세 때에는 기질을 측정하고, 만 14세 때에는 그릿과 학업적 실패내성을 측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아동의 통제 기질은 청소년기의 학업적 실패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를 잘 하는 아동일수록 실패내성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둘째, 그릿은 학업적 실패내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그릿이 높을수록 실패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열정과 끈기가 높아 실패 상황에 대해 건설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의 통제 기질이 청소년기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그릿은 통제 기질의 영향력을 증가시켜 학업적 실패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였다.

주제어 : 학업적 실패내성, 통제 기질, 그릿, 아동기, 청소년기, 종단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al Effortful Control and adolescents' Academic failure tolerance(AFT). Specifically, Grit effect as a mediator between Effortful Control and AFT was also determined. A total of 108 children participated as they were at age 8, and as they turned 14 years old. Children Behavior Questionnaire (CBQ) was measured to investigate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Grit scale and AFT scale were measured to investigate adolescents' Grit and their response to fail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children's Effortful Control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FT. And adolescents' Grit was also positively related to adolescents' AFT. In addition, Effortful Control was related to Grit. Finally, Grit par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ffortful Control and AFT.

**Key Words** : Academic failure tolerance, effortful control, Grit, Childhood, Adolescence, Longitudinal study

### 1. 서론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부담은 입시 경쟁이 분

격화되는 청소년기에 심화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이며 스트레스와 우울감 경험이 증가하는 시기이지만[1],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보완한 것을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 Keumjoo Kwak (kjkwak@snu.ac.kr)

Received July 9, 2018

Accepted September 20, 2018

Revised August 23, 2018

Published September 28, 2018

경쟁일변도의 교육환경에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업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실패 위험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2]. 이에 더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72개 국가 중 71위를 차지하여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이는 입시위주의 경쟁과 과중한 학습량과 시간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3].

학업 과정에서 겪는 실패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모든 실패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어떤 생각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실패의 부정적인 효과도 달리 나타나고 건설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달라진다[4,5]. 때문에 실패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것은 학업에 대한 성취를 높이고 자아 존중감을 보호하며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Clifford 등(1988)은 실패에 대한 내성을 설명하는 변인들 중 하나로 학업적 실패내성(Academic Failure Tolerance, AFT)을 강조하였다[6].

학업적 실패내성은 실패 결과에 대하여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6]. 학업적 실패내성은 학업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실패내성과 관련하여 학업 성취도와 학교 적응력 같은 학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었고[7], 이 밖에도 자아 존중감, 자아 탄력성, 자아 효능감 등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들도 이루어진 바 있다[6]. 이와 같은 결과들은 학업적 실패내성이 학업 측면에 기여하는 바가 클 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실패를 건설적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학업적 실패내성은 ‘과제수준선호’, ‘감정’, ‘행동’의 세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과제수준선호’(task difficulty)는 과제 난이도에 보이는 인지 또는 행동적 측면이다. 둘째, ‘감정’(feeling)은 실패 경험 후에 보이는 긍정 또는 부정적 반응이다. 셋째, ‘행동’(behavior)은 실패 만회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강구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측면과 실패 후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적 측면이다.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을수록 높은 난이도의 과제를 선호하고, 실패

후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낮으며, 실패 만회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 가능성이 높다. 학업적 실패내성에서의 ‘감정’은 실패의 경험 후에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정서조절의 여부는 실패 이후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감정상태에 오래 머무를수록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이후 수행에서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반응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학업적 실패내성의 ‘감정’과 관련하여 실패 경험 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으로는 기질의 통제(effortful control) 요인이 있다. Rothbart와 Bates(2006)는 통제 기질이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밝히며, 통제 기질과 정서조절간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8]. 통제 기질은 우세하지 않은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이다[8].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제 기질이 높은 아동일수록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을 덜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9].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통제 기질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 상황을 더 참고 견디며 화를 덜 표출하였다[10]. 이는 높은 수준의 통제 기질이 개인의 주의, 정서, 그리고 행동 반응들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1]. 이를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통제는 실패가 유발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고 이후에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업적 실패 내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학업적 실패 내성이 실패 상황에서의 적응적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동시에 수행의 과정이 반복적이고 좌절스럽더라도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업적 실패 내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그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릿(Grit)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힘을 뜻한다. 통제 기질과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인 상황에서 포기하기 보다는 이러한 오후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의 감정을 추스르고 노력하는 행동을 취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릿의 수준이 높은 학생은 학업을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적고, 정서적 적응과 사회적응, 학교생활 만족, 학업 적응능력이 높게 나타났다[14]. 또한 그릿은 자기통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수행의 과정이 반복적이고 좌절스러워도 이를 지속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한다[13,15,16]. 또한 그릿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 속에는,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행동들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조절하는 별도의 자기통제가 필요하다. 이들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각 작용할 때보다 함께 고려되었을 때 높은 수준의 더 큰 성취를 예측할 수 있다[17].

그릿은 변화의 가능성이 높고 발달의 여지가 커[18] 후천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지적 능력이나 사회 경제적 상황 보다 개입에 따른 변화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좋지 않은 환경적 여건에 놓여있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19,20]. 요약해보면, 그릿은 환경에 따른 개발이 가능한 변인이며,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릿이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 관계를 매개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그릿은 실패할 것을 예상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한다는 면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과제수준선호’와 유사한 점이 있다. 실제로 그릿이 높은 사람들이 난이도가 낮은 과제와 낮은 보상, 난이도가 높은 과제와 높은 보상 중 후자를 선택하는 성향이 높았다[21]. 이러한 특성은 어려운 수행에서 실패를 예상하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과제수준선호’ 요인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릿이 높은 사람들이 어려운 과제에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지속해서 도전하는 끈기를 보였다[22,23]. 이는 적정 수준의 위험 감수성(risk-taking)이 수행 수준, 끈기, 유능감, 자부심과 만족감을 증진시켜, 성공적으로 실패를 극복하고 성취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5,6].

학업적 실패내성은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하고 후속 수행을 위한 전략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한다[26]. 그릿 역시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조명하고 효율적인 문제-해결(problem-solving) 방식을 사용하여[23], 실패를 건설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을 준다. 학업적 실패내성과 그릿 모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특성을 가진다[25,26] 종합해보자면, 그릿과 학업적 실패내성은 실패 후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공유한

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그릿과 학업적 실패내성간의 관련성, 그리고 그릿과 통제 기질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관계를 그릿이 매개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통제 기질은 학업적 실패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그릿은 학업적 실패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그릿은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 2. 방법

### 2.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동안의 통제 기질이 청소년기 동안의 학업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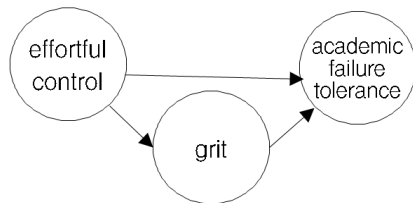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2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만 8세와 14세 측정에 모두 참여한 108명(남 50명, 여 58명)으로, 측정 당시 평균 연령은 13.98세였다.

### 2.3 연구절차

아동의 기질은 참여 아동들의 나이가 만 8세가 되었을 때 측정하였고, 청소년기의 그릿과 학업적 실패내성은 참여 학생들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와 설문지는 연구참여자의 소속기관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의해 사전에 미리 검토되고 승인되었다.

2.4. 도구

2.4.1 통제 기질

아동기의 통제 기질은 아동 행동 척도(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BQ)를 한국 아동에 맞게 표준화한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27,28]. 아동 행동 척도는 총 9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문항은 자기보고식 6단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기질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2.4.2 그릿

청소년기의 그릿은 그릿 척도(Grit Scale)로 측정하였다[29,30]. 그릿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모든 문항은 자기보고식 5단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그릿 척도 문항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68였다.

2.4.3 학업적 실패내성

학업적 실패내성은 Kim과 Clifford(1988)의 연구에서 제작한 Academic Failure Tolerance Scale을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맞게 표준화한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32,33].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는 총 2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기보고식 6단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 문항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63-.85였다.

2.5 자료 분석

통계 분석을 위하여 SPSS(the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24)를 사용하였다.

3. 결과

3.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in variables

	min.	max.	M	SD
effortful control	85	125	105.45	7.19
grit	19	51	36.02	5.74
academic failure tolerance	24	118	80.71	17.42

3.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은 정적인 상관( $r=.35, p<.001$ )을, 그릿과 학업적 실패내성도 정적인 상관( $r=.57, p<.001$ )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통제 기질과 그릿 역시 정적인 상관( $r=.30, p<.001$ )을 나타냈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1	2	3
1. effortful control	1	.30**	.35**
2. grit	.30**	1	.57**
3. academic failure tolerance	.35**	.57**	1

\*\* $p<.05$

3.3 주요 변인 간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관계에서 그릿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의 3단계 분석방법(1986)을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통제 기질)가 매개변수(그릿)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통제 기질)가 종속변수(학업적 실패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독립변수(통제 기질)와 매개변수(그릿)가 종속변수(학업적 실패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1단계로 본 연구 모델의 독립변수인 통제 기질이 매개변수인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통제 기질이 그릿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통제 기질이 높아질수록 그릿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3.30, p<.01$ ). 2단계로 독립변수인 통제 기질이 종속변수인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통제 기질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통제 기질이 높아질수록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3.89, p<.01$ ). 마지막으로 3단계로는 독립변수인 통제 기질과 매개변수인 그릿이 종속변수인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두 변수 모두 학업적 실패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각각  $t=2.40, p<.05; t=6.36, p<.01$ ).

또한 매개변수인 그릿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단

계와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된 베타 값( $\beta$ )을 비교해보았을 때, 3단계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p < .05$ ) 그 회귀계수 값( $t = .19$ )이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 $t = .35$ )보다 작기 때문에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Analysis results of mediating effect

	$\beta$	$t$	$R^2$	$P$
step 1	.30	3.30	.08	< .01
step 2	.35	3.89	.11	< .01
step 3	.19	2.40	.35	< .05
	.51	6.36		< .01

### 3.4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근 Sobel Test보다 선호되고 있는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였다[29].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1,000개의 표본은 재 추출하였으며, 양측 검증을 이용하여 실제 유의성을 파악하였다. 이때 Table 4와 같이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 하-상한 값이 각각 .502과 1.237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영 가설을 기각하였으며, 매개효과가 있다는 연구가설을 채택하였다.

Table 4. Bootstrap test of mediating effect

mediating effect	95% C.I.		Sig.
	lower	upper	
	.502	1.237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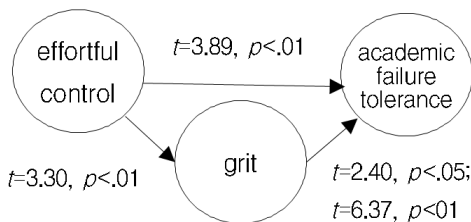


Fig. 2. Mediating effect between main variables

## 4. 논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만 8세의 통제 기질은 만 14세의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이 있었

다. 통제의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실패에 대한 내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릿은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이 있었다. 그릿이 높은 학생들은 끈기와 열정으로 실패를 건설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릿은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통제 기질이 높을수록 그릿도 높아지며, 이 두 변인 모두 학업적 실패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자면 통제 기질에 따른 학업적 실패내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그릿이 이들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실패내성이 세 가지의 하위 요인(감정, 과제수준선호,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통제 기질과 그릿이 각각 실패내성의 어떤 하위요인들과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통제 기질은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 하였고, 이는 학업적 실패내성의 하위요인인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Carlson과 Wang(2007)의 연구와 관련 지어 해석될 수 있다[11].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통제 기질이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정서 이해력이 높고,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는 통제 기질이 정서 조절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결과이며, 본 연구와도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학업적 실패내성의 ‘과제수준선호’ 요인은 그릿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그릿이 과제 수행에 있어서 실패를 감내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릿이 높을수록 어려운 수행 과제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23]. 이를 통해 그릿이 긍정적인 정서와 기대를 바탕으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릿과 학업적 실패내성간의 정적 상관관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적 실패내성의 ‘행동’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통제 기질과 그릿 모두가 공통적으로 관련성을 나타냈다. 높은 수준의 통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충동적인 행동을 억누를 수 있었으며[11], 높은 수준의 그릿은 실패 상황에서 오히려 노력을 증대시키는 행동을 하게하고 [23], 부정적 상황에서 효율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사용하여 실패를 건설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

소들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기질, 교육 수준, 또는 소득 등과 같은 사회 환경적 요소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아동기의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 관계, 그리고 이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가 모두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연구의 결과를 개인별로 추출하여 상담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학업적 실패내성은 학업적 측면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인 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업과 개인의 생활에 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는 학업적 실패내성의 예측 요인으로 통제 기질을 탐색함으로써 아동기부터 조기 개입하여 실패에 대한 내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 변인으로 그릿의 효과를 규명하여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그릿의 끈기와 열정을 통해 건설적인 방법으로 실패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 [1] R. C. Kessler, P. Berglund, O. Demler, R. Jin, K. R. Merikangas, & E. E. Walters. (2005). Lifetime prevalence and age-of-onset distributions of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6), 593-602.
- [2] Statistic Korea (2017). (2017. 04). 2017 Adolescent Statistics. Statistic Korea. <http://kostat.go.kr/wsearch/search.jsp>
- [3] Y. G. Ku, M. S. Suk, & O. S. Cho. (2018). Converged Influence of Individual, Parental and Social Support Factors to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183-192.
- [4] A. Y. Kim. (1997). A Study on academic failure-tolerance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2), 1-19.
- [5] M. M. Clifford. (1984). Thoughts on a theory of constructive failure. *Educational Psychology*, 19(2), 109-120.
- [6] M. M. Clifford, A. Kim, & B. A. McDonald. (1988). Responses to failure as influenced by task attribution, outcome attribution, and failure toleranc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57(1),19-37.
- [7] J. Y. Park, C. H. Woo, & J. E. Kim. (2018).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the Grit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ing Cliniv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165-175.
- [8] M. K. Rothbart & J. E. Bates. (2006). Temperament. In W. Damon, R. Lerner, & N. Eisenberg(Eds.), *Hand book of child psychology: Vol.3.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6th ed., pp. 99 - 166). New York: Wiley.
- [9] G. Kochanska & A. Knaack. (2003). Effortful control as a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young children: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71(6),1087-1112.
- [10] S. M. Carlson & T. S. Wang. (2007). Inhibitory control and emotion regulation in preschool children. *Cognitive Development*, 22(4), 489-510.
- [11] K. S. Moon (2000). Academic Stress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The Role of Self-control and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5), 289-299.
- [12] M. K. Rothbart, & S. Ahadi. (1994). Temperament and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1),55 - 66.
- [13] S. Yoon, J. W. You, & Y. R. Yoo.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Motiv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6(3), 47.
- [14]S. J. Lee, & J. Y. Park. (2018).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2), 269-276.
- [15] A. L. Duckworth, T. A. Kirby, E. Tsukayama, H. Berstein, & K. A. Ericsson. (2011). Deliberate practice spells success why grittier competitors triumph at the national spelling be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2),174-181.
- [16] P. J. Silvia, K. M. Eddington, R. E. Beaty, E. C. Nusbaum, & T. R. Kwapil. (2013). Gritty people try harder: Grit and effort-related cardiac autonomic activity during an active coping challeng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88(2), 200-205.
- [17] A. L. Duckworth & J. J. Gross. (2014). Self-control and grit: Related but separable determinants of succ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19-325.
- [18] A. L. Duckworth.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ewYork: Scribner.

[19] J. S. Park. (2017). *Feedback o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Mindset, Grit and Self-Control*.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 T. Kautz, J. J. Heckman, R. Diris, B. Ter Weel, & L. Borghans. (2014). *Fostering and measuring skills: Improving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s to promote life time success*. Cambridg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1] L. Gerhards & C. Gravert. (2015). Grit Trumps Talent? An experimental approach. Economics Working Papers in Economics 629, University of Gothenburg, Department of Economics.

[22] J. Lee. (2016). *The role of Self-Regulatory Efficacy and Flow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of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e Difficult Anagram Task Performance*. Master's thesis. Ehaw Womans University, Seoul.

[23] G. M. Lucas, J. Gratch, L. Cheng, & S. Marsella. (2015). When the going gets tough: Grit predicts costly persevera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59, 15-22.

[24] A. Y. Kim & J. Joo. (1999). Relationships among learned helplessness, failure tolerance,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29(6), 157-176.

[25] D. V. Blalock, K. C. Young, & E. M. Kleiman. (2015). Stability amidst turmoil: Grit buffers the effects of negative life events on suicidal ideation. *Psychiatry Research*, 228(3), 781-784.

[26] B. Park, J. Youk & N. Kim. (2013). The differences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elementary gifted student'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elf-determination. *Journal of Gifted/ Talented Education*, 12(2), 49-67.

[27] S. C. Kim & K. J. Kwak. (2011). The Mediating Role of Child's Temperament on Early School Adjustment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s: On the Negative Reactivity of Temperament.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155-171.

[28] M. K. Rothbart, S. A. Ahadi, K. L. Hershey, & P. Fisher. (2001). Investigations of temperament at three to seven years: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72(5), 1394-1408.

[29] J. R. Eom & M. Y. Nam. (2018). The Convergence effects of on Adolescent depression on Agression by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193-202.

[30] S. E. Park (2018).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Grit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A Longitudinal Study from Age 4 to 14*.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31]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 D. R. Kelly.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32] A. Y. Kim & M. M. Clifford. (1988). Goal source, Goal, difficul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as predictors of response to failur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8(1), 28-43.

[33] A. Y. Kim. (2002). Development of Standarized Students Motivation Scales. *Journal of Education Evaluation*, 15(1), 157-184.

장 나 리(Jang, Na Ri)

[정회원]



- 2010년 6월 :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심리학과(학사)
- 2001년 9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발달심리학 전공)
- 관심분야 : 발달심리학
- E-Mail : nari622@naver.com

곽 금 주(Kwak, Keumjoo)

[정회원]



- 1981년 2월 : 서울대학교 아동학과(학사)
- 1985년 2월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석사)
- 1992년 8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박사)
- 2002년 6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발달심리학, 지능, 종단연구
- E-Mail : kjkwak@snu.ac.kr

김 연 수(Kim, Yeonsoo)

[정회원]



- 1996년 2월 :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학사)
- 1999년 8월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석사)
- 2011년 2월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박사)
- 2017년 8월 ~ 현재 :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발달심리학, 영유아발달
- E-Mail : yskim17@jj.ac.kr